

추석 대비 물가안정 대책 시행

대테러·화재 대피 실제훈련

익산시, 장바구니 체감 물가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적극 대응

익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증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대비 특별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을 추석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장바구니 체감 물가부담 완화·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민생안정 도모·부담가격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실효성 있는 물가 관리에 나선다. 우선 지역화폐 다이아몬드 카드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사용자 중 응모를 통해 선착순 1,000명에게 정책수당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다.

성수물품 20종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아양동 모현동)와 대형마트 3개소(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청 각 부서들과 관내 기관·단체 28개소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별보증 50억원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1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최대 5,000만원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액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개시

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물가동향 파악과 상거래용 저울 조작, 검정 마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공산품 안전인증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기간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을 통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 및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함으로써 부담가격 및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급등, 기상 이변 등으로 이번 추석이 시민들에게 역대 가장 어려운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을지연습 실천처럼... 드론테러 훈련 실시

익산시는 시민 인보를 위해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제로 대테러 및 화재대응 실제훈련을 진행했다.

익산시는 2022 을지연습 실제 훈련으로 신원미상의 무장 테러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인질극 및 드론테러에 의한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훈련을 24일 오후 5시에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했다.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전북경찰특공대, 육군 9585부대 3대대 및 한전익산지점 KT익산지사 등 7개 기관 100여명의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테러 대비 실제 훈련이 이뤄졌다.

테러발생에 따른 신고접수, 인질 구출활동과 드론테러에 따른 화재발생 및 화재진압 활동 등을 전개했다. 테러가 발생하자 경찰과 9585부대 3대대는 테러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사주 경계등 초동 조치를 긴급히 실시했다.

전북경찰특공대의 테러진압과 인질 구출활동을 실시하고, 드론테러에 따른 대피훈련, 소방서 구급차량에 의한 인명 구조 활동과 화재진압에 나섰다.

한전과 KT에서는 파괴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긴급복구에 들어갔으며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전력과 통신을 단시간 내에 재개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대테러 및 화재 대피 실제훈련을 통해 지역 위기 관리 역량강화와 비상사태시 총력전 수행태세를 확립해 나갔다”며 “사고 발생 원점에서 민·관·군경이 통합된 초동조치 절차를 숙달해 대형재난에 대비한 훈련으로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정현을 시장, 익산역 복합개발 추진 행보

씨엑스씨에 구체화 된 개발계획 수립 요청

정현을 시장이 KTX익산역 복합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23일 익산을 방문한 씨엑스씨 회장과 면담을 갖고 사업이 빠른 시일 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씨엑스씨 측은 익산역의 잠재력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복합개발에 대한 방향과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 국내 최고 민간기업인 씨엑스씨 등과 KTX익산역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특히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씨엑스씨는 국내 최초 복층형 오피스텔인 ‘청원 레이크빌’, 국내 최초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 ‘라페스타’와 웨스턴 돛, 쇼핑몰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인 원마운트 등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 디벨로퍼로 KTX익산역의 개발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시는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공모를 실시해 핵심 앵커사업이 포함된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한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국내 최고 민간기업들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KTX익산역 복합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며 “행정에서도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보건의소,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군산시보건의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용·미성동 등 서부권 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주2회(화·목요일) 다인턴 뇌 인지 놀이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고립되어 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에 좋은 음식·운동·게임·놀이 등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기억력 증진 및 정서 안정을 제공해 치매로의 이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뇌운동인지 매뉴얼 두뇌건강 놀이책 등 인지강화 훈련 학습 △공간능력·주의집중력 향상을 위한 철교놀이, △군산의료원 연계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활동 자극 체조 △인지증진 힐링타임 원예체험 교실 △뇌 건강

신체 건강! 행기 월명산 숲길 걷기, △기억력 향상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노인 학대·우울증·자살 등 예방교육,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 보건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전·후 건강기초검사 및 치매선별검사 노인 우울척도검사, 기억 감퇴평가를 실시하며 유소견자는 치매 치료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서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이나 전화(☎454-5175~7)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흥남동 지사협, 내 방의 작은 쉼터 ‘콩나물 키우기’ 호응

군산시 흥남동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진정권)가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했던 반려식물 콩나물 키우기 사업을 작년보다 50%정도 확대해 저소득 홀몸 어르신 210세대에 대해 제공했다.

반려식물 콩나물 키우기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우울·고독감을 느끼는 홀몸 어르신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특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반려식물을 한달 동안 키운 홀몸 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결



과 108명 중 85명(79%)이 우울감 감소에 도움이 되고 향후 74명(69%)이 재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올해도 재추진했다.

미원동 최모 어르신은 “허탈 적 추억을 생각하며 직접 기른 콩나물로 반

찬을 만들어 먹고 또 옆집 할머니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콩나물에 물을 주면서 적정한 마음도 달랠수 있어서 즐겁다”고 전했다.

진정권 위원장은 “반려식물인 콩나물 키우기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흥남동의 대표적인 복지특화사업으로 1년 1회씩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숙자 흥남동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 마음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